

2012년 겨울 제58권 4호

성서한국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대한성서공회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12.9.1~13.8.31
서초우체국
승인 제41180호

받는사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1 3 7 - 8 6 3

 **BIBLE** 매달 한 권의 성경을...
A MONTH CLUB

BIBLE A MONTH CLUB!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서 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 어 먼쓰 클럽(Bible a Month Club)은
매월 정기적으로 성서헌금을 약정하여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4 팩스: 02-2103-889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 www.bskorea.or.kr



기념일 성경 나눔!

성경 나눔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큼니다.
지금부터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 한국

'기념일 성경 나눔'이란?

특별하고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고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은 이런 날 할 수 있어요!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돌, 생일, 입학,
졸업, 취업, 승진, 은퇴,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에 나눔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에 참여하시면...

본인이나 가족, 친지, 동료 등의 기념일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기부해 주세요.
10만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시면 사진과 함께 나눔의 글이 담긴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원하시는 경우 사진과 글을 보내주세요.

★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방법

기념일 성경 나눔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080-374-3061 / 02-2103-8833~4)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 | 이메일 biblef@bskorea.or.kr | 팩스 02-2103-8894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서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

이메일 : _____

후원금액 : _____

후원계좌 : 수협은행 1010-0997-7440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 신청 : ☐ 예 ☐ 아니오

(성경 나눔 증서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면, 증서에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나눔 증서에 넣기 원하는 성경 : _____ 기념일 : _____

나눔 증서에 남기고 싶은 말씀 : _____

C O N T E N T S

2 제118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 권의현

4 모금소식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 호재민

8 사람과 사람들

지금, 미얀마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 조지윤

12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④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테 · 장홍길

16 성서 속의 물건들⑧

"안장, 안장 천", "도장, 인장이 새겨진 반지, 반지"

18 미자립교회에서 온 편지

마음껏 전도하게 된 기쁨 · 박명숙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할 때... · 허종섭

20 KBS 소식

제11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 그리고

세계 성서공회 운동에 대한 기여" 보고

대호수 및 동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협의회 회의 참석

22 지구촌 소식

성경 읽기를 통해 마약 거래상에서 교회 개척자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성경 없이 드리는 예배

24 성서전시실

문리학 논문 성경



평양 동수교회의 김구용 목사가
성경을 들고 있다.

성서한국

2012 · 겨울

제58권 4호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 팩스 : 2103-8894
· 회원문의 : 2103-8833-4 · 편집문의 : 2103-8811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2103-6791-2
· 은행지로 : 7511327 ·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디자인하우스 하늘

■ <http://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알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서 사업 보고*



권의현 사장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기구 축소에 따른 효율적인 성서사업 수행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앙 및 지역 센터 중심의 지역별 지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별로 개별 성서공회 중 하나를 '지역 자원 센터'(Mission Resource Center)로 선정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역을 위해서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지역 단위 및 국제 공용어 사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공회가 성서 수요가 급증하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이나 국제 통용어권 나라들에 성서를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이러한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서사업을 잘 감당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공회는 금년에도 국내 성서 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군 장병 등에게 성경 26,490부를 기증하였으며, 미자립교회, 병원, 교도소, 학교 등에 신약과 단편성서, 전도지를 포함하여 총 11,057,938부를 기증하였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메시지를 삶

속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본 공회에서는 지난 3월에 안드로이드용으로, 5월에는 아이폰용으로 <모바일성경>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아이패드용 <연구성경>을 출시하여 목회자, 신학생 및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로부터 성경 연구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매체로 성경을 보급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금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서 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을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한 지원과, 미자립성서공회 성서 기증으로 총 미화 약 150여만 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성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서공회들의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제작하여 페루, 푸에르토리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가나, 토고, 베냉, 카메룬,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등을 비롯한 21개 나라에 152,35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협력하여 자신의 언어로 처음 번역된 소수민족들의

성경인 파라난어(필리핀), 눈어(세네갈) 성경을 본 공회가 제작하여 기증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서구 성서공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번역 출판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난 해에 이어서 미얀마 5개 소수 민족의 성경 번역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파오어 성경 번역은 본 공회 번역실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장(통합) 사회봉사부에서 3년 연속해서 금년에도 아이티어 성경 20,500부를 제작 기증할 수 있도록 10만 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은 지난해보다 2억여 원이 증가한 15억 7천만여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의 성경 번역 지원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 공회에 성서 기증을 요청하는 미자립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서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18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호재민(홍보진흥본부 본부장)

북한이탈주민 선교의 중요성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인가? 세계 어느 국가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북한은 지리적으로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마음대로 넘나들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남한에서 가장 먼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 끝’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체사상과 무신론의 세계에

간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북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남북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북한 선교를 위한 첫걸음은 먼저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복음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설명하고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일은 쉽지 않다. 60년이라는 세월을 이질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일부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1995년의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 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등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예배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중국, 캄보디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국 송환을 우려하여 필사적으로 남한으로 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의 새로운 변화와 탈북을 막는 조치들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4,308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부, 2012년 10월). 이 중에서 20~30대가 전체 입국자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글을 읽고



새벽예배를 드리는 북한이탈주민들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합동 심문(2~3개월)을 거쳐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기초 검진 및 치료와 함께 문화적 이질감 해소, 기초 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 안정 및 정서 순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소개, 역사 교육, 홈스테이 및 시내 방문 등의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을 수료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일에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중에서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매달 약 1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0~70%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회 예배

에 참석하며, 매월 약 5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세례를 받고 있다.

하나교회 이승재 목사에 따르면, 하나원의 3개월 교육 기간 동안에 예배에 참석하는 교육생들의 신앙 분포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완전한 초신자가 약 85%에 이른다. 둘째는 중국 및 제3국에 체류시 선교사 혹은 교회를 통해 신앙 경험에 있는 사람이 약 13~14%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지하교회 출신 성도가 약 1~2%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로 남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전체 인원의 60~70%에 해당하는 인원이 주일마다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품고 지원하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타종교보다도 먼저 기독교에 첫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을 남한 사회를 경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성경 보급의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은 평생 동안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세뇌교육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북한의 붕괴된 사회구조와 깨진 가정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서적 결핍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전한다. 식량을 얻으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나온 북한 여성들의 경우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도망쳐서 남한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심리적인 상처들이 매우 깊고, 불안과 두려움, 분노, 불면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면서 꾸준하게 사랑의 섬김을 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정서 불안 및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들을 복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혹은 중국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성경과 단편 등 전도 물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선교를 준비해 온 한국교회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북한선교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선교는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북한이탈주

민들로부터 북한선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북한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선교를 위한 귀중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교는 남북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게 될 교회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가치와 문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가 아직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노출되지 않아 복음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거나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지역에 선교 사역자로 파송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고 들을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조속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필요한 성경책은 올해 입국자 기준으로 매월 100여 권이다.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숫자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작년보다 50% 줄어든 상황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입국자가 늘어날 경우 두 배의 성경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성경 보급이 절실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만원을 헌금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성경 2권을 선물할 수 있다. 후원 문의: 홍보진흥본부 (02)2103-8833~4



지금, 미얀마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조지윤(번역실 과장)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파오 구약 번역 자문을 하기 위하여 양곤에 있는 미얀마성서공회를 방문하였다. 미얀마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양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한 것을 보면,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 자국민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 신분으로는 비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본 공회는 2011년에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부터 미얀마성서공회가 진행하고 있는 5개 번역 프로젝트인 파오 구약, 쿠알심 신약, 쿠미 친 구약, 하와 나가 구약,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파오 구약 번역 자문을 위하여 미얀마성서공회를 방문한 1주일 동안, 쿠미 친 구약 번역자와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자를 직접 만나서 번역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쿠미 친 구약 번역자

쿠미 친 구약 번역자를 만나

쿠미 친 종족은 약 6천 명 정도로 미얀마 남부, 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다. 쿠미 친 신약은 두 명의 선교사와 원주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어 1958년 런던에서 출간된 바 있다. 쿠미 친 구약 프로젝트는 2001년에 시작되었는데 2006년, 그동안 구약 번역을 진행시켰던 번역자가 퇴직하고 지금의 번역자인 세인 툰(Sein Tun) 목사가 구약 번역을 맡기 시작하였다. 그는 1년에 두 번씩 구약 번역 자문을 받기 위해 양곤에 있는 미얀마 성서공회를 방문해야 했는데 그 길이 멀고 험했다. 쿠미 친 지역에서 양곤까지 오는 데만 족히 3일이 걸렸다. 그러나 그는 거르지 않고 미얀마성서공회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 이번 12월에 쿠미 친 구약 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쿠미 친 성경 출간을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더 신약 번역과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쿠미 친 번역자는 1명이지만, 감수자 3명과 종족어 전문가들과,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등 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번역 위원회 12명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감수에 임하고 있다. 쿠미 친 번역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미 친 구약 번역을 지원해주신 대한성서공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바라는 것은 쿠미 친 신약과의 조율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자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자를 만나

라시드 사람들은 미얀마 내에 100,000명, 해외에 30,000명 정도가 있다. 그 중에 6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미얀마 소수민족 중에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라시드 성경 번역이 2006년에 끝난 후, 2010년 라시드 번역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소수민족어로 신약 해설 성경 번역을 제안하였다. 현재, 20명의 번역 위원회 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라시드 해설 성경 번역은 50%를 한 상태이고, 로마서까지 번역 자문을 받은 상태이다. 라시드 신약 해설 집필은 2013년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2014년에 감수와 자문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자인 부일랍 깡본(Bwilap Kyang Bawn)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청년으로, 대학을 다닐 때 한 친구로부터 컴퓨터를 배웠는데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컴퓨터를 친구에게 빌려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에 합류하면서 교회 집사이자 목수인 아버지가 전재산을 털어 컴퓨터 한 대를 사주었다고 한다. 그 보물 같은 컴퓨터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청년은 활짝 웃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가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종족들이 감사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파오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파오 구약은 현재, 신명기까지 번역이 끝난 상태이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자문이 끝난 상태이다. 파오인은 대부분 불교인으로 기독교인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감수자 5명을 포함해서 27명의 교회 대표들이 번역위원회 위원으로 파오 구약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파오 기독교인들은 구약 번역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출애굽기 번역 자문을 하면서 파오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생활에 관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출 3:8, 17; 13:5; 33:3)은, 파오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젓”으로,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milk”(우유)로 번역한 것을, 파오 사람들은 나쁜 냄새가 나

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한다. 젓소 고기는 먹을지라도 젓소 우유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꿀은 너무 달고 이상한 맛이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우연하게 먹게 되어도 이를 던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가고 싶지 않는 땅인 것이다.

그래서 파오 구약 번역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복음번역>(Good News Translation)의 번역을 따라 “a rich and fertile land(기름지고 비옥한 땅)”로 번역하였다. 파오 사람들은 90%가 농부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농부가 되고 싶어한다. 그래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파오인들이 꿈에 그리는 땅이다. 그 가고 싶은 땅, “가나안 땅”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땅이었던 것처럼, “기름지고 비옥한 땅” 또한 파오 사람들이 가고 싶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 “자색”으로 번역한 색을 “가지꽃 색”이라고 옮겼다. 번역 자문 중에 번역자에게 “보라색”, “자주색” 등을 보여주었지만 파오어 중에는 이를 가리키는 색명이 없다고 하여, 번역위원회에서 이를 “가지꽃 색”이라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량형 번역은, 성경의 도량형인 “규빗”이나, 영어권 독자들의 “센티미터”나 “인치”가, 파오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도량형으로 대치하도록 자문하였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의 길이를 가리키는 성경의 “규빗”과 같은 도량형을 파오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량형인 “다웅(daung)”으로, 그 반은 “타와(htwa)”로 일관되게 번역하도록 자문하였다.

이번 자문 기간 동안, 파오 번역자뿐 아니라 그를 돕는 입력자와 영어로 역번역을 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다. 이들의 헌신으로 파오 구약 번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놀랍게도 2009년에 완성된 파오 신약은 파오인 불교 승려들이 즐겨 읽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파오인들은 파오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다. 학교에서는 버마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파오어를 사용하더라도 파오어를 쓸 기회가 없다. 그리고 파오어로 된 책조차 부족하다. 그러므로 파오 구약 번역이 완성되어 파오 성경이 출간되면, 이를 흥미롭게 여기는 파오인들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파오 번역자의 요청대로 이번에 본 공회에서는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노트북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필자가 미얀마를 방문할 때 전달하였다. 파오 번역자는 본 공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그동안은 손으로 번역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입력을 해서, 다음해까지 열왕기하를 번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파오 구약 번역팀

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공회와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였다.

미얀마는 이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갈 길이 멀다. 90%가 넘는 이들이 불교인이고 기독교 인구는 8%에 불과하다. 기독교인들이 된 이들은 그 마을이나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씩 열리고 있는 개방의 물결이 언젠가는 미얀마의 문을 활짝 열어, 기독교에 배타적이고 불교가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소수 민족 성경 번역은, 미얀마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공회는 2013년까지 번역 지원을 하는 것과 함께 번역이 끝나는 대로 이를 출간하여 직접 기증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

장흥길(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아크로폴리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首都)인 아테네는 1세기 중엽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거쳐 방문한 도시로,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서양철학의 산실(産室)이었고, 체육·연극·음악·건축·예술 등 각종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바울 당시 아테네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을 알려주는 누가의 기록

(행 17:16-34)과 바울 자신이 언급한 짧은 진술(살전 3:1)이 전부다. 바울이 처음 이 도시를 방문한 때를 주후 50년으로 추정한다면, 그는 다음에 열거한 곳을 보거나 방문하였을 것이다. 곧,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이 있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신전인 올림피아(Olympia)의 제우스(Zeus) 신전, 아름다운 물시계가 있는 로마 시대의 시장(agora), 아크로폴리스 남서쪽의 페리클레스 음악당(Ode-

on of Pericles), 최초로 연극이 공연되었던 아크로폴리스 남쪽의 디오니소스(Dionysus) 극장, 민주주의의 절정기에 민회가 모였던 프닉스(Pnyx) 언덕, 주요 법정인 에르미온 때 회합 장소였던 아레오바고(Areopagus)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장소와 성경의 기록을 고려하여, 아테네 성경(행 17:16-34)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 그 관련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그는 베뢰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때 바울을 잡으러 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소요로 바울은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를 베뢰아에 남겨두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따라 배를 타고 급히 피신하여 아테네에 이르르게 되었다. 아테네에서 그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16절). 리비우스(Livius)와 파우자니아스(Pausanias) 같은 고대 작가들

에 의하면, 이 도시에는 헬라의 각종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상(神像)들이 많이 있어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였다고, 아테네는 가히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다. 이런 우상을 가리켜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행 17:29)로 표현하였다. 심지어 그는 이 도시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행 17:23)도 보았다. 실제로 동일한 글귀가 새겨진 명문(銘文)이 버가모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누가 보고하는 바울의 말을 고학적으로 입증하는 간접적인 자료이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해 섬길 수 없었던 신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만들어 섬겼다. 이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 하나는 아테네에 우상이 아주 많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강했다는 점이다.

아테네에 입성하여 첫눈에 들어오는 우상에 격분했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아레오바고



제우스 신전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로마시대 아고라의 바람의 탑



아고라의 스토아

바울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sebomenoi)을 만났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란 고넬료처럼(행 10장)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에 출입하는 신심(信心)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들과 변론하고, 아텐 사람들의 일상적인 회집 장소인 장터(agora)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바울이 논쟁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18절). 스토아 철학은 제논(Zenon, 주전 335-263년)이 전유(大儒)학파의 영향을 받아 창시한 금욕주의 철학으로, 그 이름은 그가 가르친 곳이 주랑(柱廊, stoa)이었던 데서 유래된 것이다. 한편, 에피쿠로스 철학은 원자로 구성된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 운행된다고 가르치면서 신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최상의 선(善)의 상태인 마음의 평정(ataraxia)을 이상(理想)으로 삼은 에피쿠로스(Epicurus, 주전 341-270년)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정원에서 가르쳤기에 이런 철학은 '정원의 철학'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바울과 변론했던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를 육

체의 부활과 같은 엉터리 사상을 퍼뜨리는 '말쟁이'(괴변가)로 생각하는가 하면, 바울의 전한 '예수와 부활'을 남신(男神)인 '예수'와 여신(女神)인 '부활'(anastasis)로 오해하여 '이방 신들', 곧 '귀신들'(demonia)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다(18절). 이들 철학자들은 지적인 호기심에서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didache)에 대해 듣고자 하였다(19-20절). 그것은 아텐 사람들과 이 도시에 온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소일거리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1절).

'아레오바고'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섬김을 받던 군신(軍神)인 '아레스'(Ares, 로마 세계에서는 '마르스'에 해당)와 '언덕'(pagos)의 합성어로, 아크로폴리스 아래 북서쪽에 있는 바위 언덕으로 관청에 의해 '소집된 법정'이었다. 바울은 이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다. 법정 가운데에 서서 그는 아텐 사람들의 종교심 많음을 먼저 말하였다(22절). '종교심이 많음'(deisidaimōn)이란 자구적으로는 '(귀)신을 두려워함'이며, '신(성)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

한다. 이를 바울은 아텐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다. 바울은 아텐 사람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는 것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 제시의 서언으로 삼았다(23절). 바울에 의하면, 그분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재이시고, 신전에 계시지 않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족속을 만들어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 온 땅에 살게 하신 분이시다(24-26절). 이때 바울은 스토아 철학의 3중적 공식 표현인 인간의 '삶과 움직임과 존재함'을 사용하여,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며 기동(起動)하게 하며 존재하게 하심을 전하였다(28절). 마치 스토아 철학자 제논의 제자인 아라투스(Aratus, 주전 315-240년)가 '페노메나(Phaenomena)'라는 시(詩)의 첫 구절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존재이다(29절).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은 아텐 시민들은 회개해야 한다(30절).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31절).

바울의 변론, 곧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다(32절). 어떤 이는 바울을 '조롱'하고, 다른 이는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고 하고, 바울을 가까이 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인 '다마리'와 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32-34절). 그 후 바울은 아텐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행 18:1).

이처럼, 바울이 적대적 유대인을 피해 피신했던 아텐은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다. 바울은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神像)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철학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정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소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임을 전하였다. ☉



아레오바고

안장, 안장 천 (saddle, saddle cloth)



낙타 안장에 앉아 있는 사람

길마에 짐을 싣은 낙타

생김새와 쓰임새

안장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동물의 등 위에 올려놓은 자리였다. 이것은 짐을 그 위에 얹어서 운반하는 시렁으로도 또한 이용될 수 있었다. 안장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모양을 내어 만든 나무에서부터 하나의 단순한 천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번역

히브리어 동사 ‘하바쉬’는 탈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고 있는 동물을 서술하는 문맥에서 언제나 나타난다. ‘안장’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없는 곳에서는, 창 22:3의 두 번째 어절은 “그는 타고 갈 나귀를 준비했다”로 번역해도 될 것이다.

창 31:34. 히브리어 낱말 ‘카르’는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나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안장’(RSV, NIV), ‘안장 가방’(GNT), ‘그녀(라헬)가 안장으로 사용한 쿠

션’(CEV), ‘[낙타] 가방’(REB), ‘쿠션’(NJB), ‘안장 바구니’(GECL)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문맥으로 보아서, 그것은 라헬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그렇게 앉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엇이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그녀는 이것 속에 (또는 그 아래에) 몇 점의 가족 수호 우상들을 숨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낙타 위에 걸친 단순한 한 조각의 천 이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문은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낙타의 안장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문맥으로부터 그녀가 자신의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행자들이 잠을 자기 위해 그들의 야영지에 도착하였을 때, 안장을 풀어서 텐트 안에 두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다.

낙타 등 위에 딱 맞는 형태의 나무 틀은 텐트 바닥에 내려놓으면 움푹 들어간 꽤 넓은 공간이 생겼고 라헬은 분명히 그 안장 의자 아래에 우상들을 숨겼을 것이다.

도장, 인장이 새겨진 반지, 반지 (seal, signet ring, ring)



생김새와 쓰임새

도장 또는 인장은 소유권, 승인 또는 어떤 것의 종결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놓는 데 사용되는, 도안이나 이름이 새겨진 물건이었다. 그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인장은 소유권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계약서와 다른 비밀 서류 또는 기밀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신원 확인의 표시로서 사용되었다(창 38:18을 보라).

인장은 둥글거나 또는 타원형으로 생겼으며 부드러운 점토 위에 눌러 찍어 점토는 굽거나, 또는 뜨거운 밀랍 위에 눌러 찍은 뒤 그 찍은 글씨가 나타나도록 밀랍은 차갑게 식게 놔두었다.

번역

몇몇 언어에서 ‘도장’ 또는 ‘인장’에 가장 가까운 대응어는 도장을 찍어서 표시한 표, 예를 들어, ‘그의 이름의 상징’ 또는 ‘그의 소유권

의 표’이다. 아니면 번역자는 ‘고무인’(rubber stamp)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일 그것이 명백하게 고무 또는 잉크를 가리키지 않는 한, 사용해도 될 것이다. 번역자들은 몇몇 구절에서는 ‘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같은 어구를 사용해도 된다.

히브리어 낱말 ‘타바아트’는 ‘자국을 찍다’를 뜻하는 어근에서 온 말이다. 인장 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NCV는 창 41:42에 ‘그의 반지’라는 문자적 어구를 ‘왕의 인장이 갖추어져 있는 그의 반지’로 부연해서 번역한다. GNT는 ‘왕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로 번역하며, SPOL은 ‘그의 공식적인 인장이 들어 있는 반지’라고 번역한다. 에 3:10에서 GNT는 ‘반지’라는 낱말을 훨씬 더 부연하여 ‘선언문에 도장을 찍어 그것을 공문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의 반지’로 번역한다. 그러나 몇몇 번역자들은 그와 같은 긴 설명은 각주에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본 공회에서 기증받은 전도지로 전도하는 허종섭 목사(가운데)

마음껏 전도하게 된 기쁨

박명숙(예수행복한교회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강서구 염창동에 교회를 개척한지 6개월이 되었고,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교역자이시고 저는 부교역자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전도지를 기증받기 전까지, 저는 전도지를 따로 구입하여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지압이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적힌 전도지를 사용했었는데, 계속해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도지 구입 비용이 저희 교회에는 부담이 되더군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자립교회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전도지를 무료로 기증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로 가서 전도지 한 박스를 받아

들고 왔습니다. 말씀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엽서 전도지더군요.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교회 명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고무인을 뒷면에 찍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가가호호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저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전도하고, 월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저희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열매는 없습니다.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로부터 전도지를 기증받아서 이제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할 때...

허종섭(예수사랑교회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의 허종섭 목사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주일에 장년 15~2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받은 전도지를 가져와 동네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돌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도들에게도 전도지를 10~20장씩 나누어 주어서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의무감으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전도지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곤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희가 나눠준 전도지를 집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보관해둔 전도지를 보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친정어머니와 아버지, 언니를 전도했고, 나중에 남편까지 전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

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제외하고 친정어머니와 언니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전도지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자립교회이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증해 주신 전도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지가 필요할 때마다 성서공회에서 매번 기증해 주셔서 늘 전도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증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 되기 전에 전도지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지를 사서 전도해야 했었습니다.

늘 전도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서 교회에 너무나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지를 계속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서공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값어치 있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여 성서공회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공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300여 개의 미자립교회, 선교회 병원 등에 11,036,128부의 전도지를 기증하였다.

제11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본 공회 제118회 정기이사회가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에 본 공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손달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서문교회)가 “네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교단대표로 박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박준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찬성회원 대표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 감사로 문석형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



제118회 정기이사회 회의 전경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 그리고 세계 성서공회 운동에 대한 기여” 보고

본 공회 제118회 정기이사회 회무 후, 권의현 사장이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올해로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17주년을 맞이한다. 초기에는 서구 성서공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성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본 공회는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성서를 차질 없이 보급할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서공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국내외 성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세계 성서공회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고, 또한 자력으로 성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성서공회들을 위해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해서 현금을 보내고, 이와 별도로 성서를 제작 보급하여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권의현 사장은, 이러한 해방 후의 성서사업에 관하여 사진과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며 자세히 보고하였다. ㉠

대호수 및 동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협의회 회의 참석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탄자니아성서공회의 므쿡가 므팅겔레 총무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스와힐리어 성서 출판위원회와 대호수 및 동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협의회 창립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스와힐리어 성서 출판물을 함께 모여 논의하는 한편, 진행중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역 분야들에 대하여 성서공회간 교류 및 상호 지원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에리트레아, 르완다, 북수단, 에티오피아,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및 신생국 남수단성서공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 전체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성서공회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을 듣고, 이들의 사역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본 공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서 출판 서비스 및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서의 조판, 디자인 개발, 성서 제작과 보급, 성서 및 전도지 기증 등 사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하여 이들 성서공회들의 사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본 공회가 해마다 많은 성경을 제작하여 아프리카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인쇄 매체 중심인 아프리카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맞춘, 품질이 좋은 다양한 형태의 성서를 출판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본 공회 직원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며, 계속해서 본 공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대호수 및 동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협의회 회의 참석자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 캄보디아성서공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시냇

성경 읽기를 통해 마약 거래상에서 교회 개척자로...

시냇이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녀는 겨우 18살이었다. 시냇은 2년형을 선고 받았고 열악한 교도소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지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성경으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제 시냇은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예전부터 시냇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다. 돈이 필요했던 시냇은 학교를 중퇴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가장 쉬운 방법인 마약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1년, 시냇은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시냇이 수감된 푸삿 감옥은 캄보디아의 다른 감옥들처럼 수감자들이 넘쳐났고 시설이 무척 열악했다. 수감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척 적었다. 시냇은 감옥의 열악한 환경과 감옥 관리자로 인한 진저리나는 공포 때문에 종종 의식을 잃곤 하였다.

매주 감옥을 방문하는 캄보디아성서교회 사립

들을 만나는 시간만이 시냇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의 유일한 빛이었다. 캄보디아성서공회는 시냇에게 성경을 주었고, 시냇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시냇은 자신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다.

어느 날, 시냇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불려 나갔고, 석방되었다. 시냇은 자신이 왜 갑자기 석방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석방된 후로 시냇은 캄보디아성서공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시냇은 자신의 지역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공회는 캄보디아성서공회의 성서사업을 돕기 위하여 2013년 2,500부의 성경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



18개의 교회가 돌려서 읽고 있는 단 한 권의 성경

콩고민주공화국의 성경 없이 드리는 예배

일반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주일 예배의 설교 준비를 위하여 여러 교회가 한 권의 성경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18개 교회를 위한 성경은 단 한 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콩고 목사들은 성경 본문을 그들의 노트에 적어오기 위하여 도보로 또는 카누를 타고 몇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콩고에 있는 복음주의 커뮤니티의 치아마 목사는 콩고-브라자빌 국경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매주 성경 본문을 적어 오거나 성경을 빌리기 위하여 성경이 있는 마을로 끊임없이 여행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단 한 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각자 성경의 한 부분을 소유하고, 서로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성경을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성경을 빌린 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잘 지키기 않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 설교를 위해 성경본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출애굽기, 누가복음, 느헤미야, 시편, 사도행전 등 본인이 받게 된 성경 본문의 전문가가 되어 다른 목회

자들과 편의를 위해 공유하기도 한다.

고데 목사의 교회는 희망의 도시라고 불리는 킨샤샤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유일하게 랑갈라어 성경을 소유하고 있던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성경 없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시간에 사용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고데 목사는 성경봉독과 설교를 제외하고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간증을 통해 예배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교회의 사정을 듣고 난 뒤, 성서공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프로그램 팀이 그 교회를 방문하여, 오디오 성경과 성경 관련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선물로 인하여 고데 목사와 성도들은 만족할 수 있었다. 오디오 성경을 받고 난 뒤로부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고데 목사가 전해 왔다.



성경을 받고 즐거워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독교인

이렇게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콩고 사람들에게 성경 보급을 하기 위해 콩고성서공회를 통하여 본 공회에서는 2013년, 10,000여 권의 성경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

문리역 한문 성경



1887년에 출간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번역할 때에는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보고 한글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나서 로스 목사님과 매킨타이어 목사님이 원문 성경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수정을 했다. 그 당시 로스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한국인 번역자들이 보았던 한문 성경을 “문리역본(文理譯本)”이라고 한다. 문리(文理)라는 말은 고전 한문을 뜻하는 말이다. 본 공회의 성서전시실에는 세 종류의 중국어 문리 성경이 있다.

1) <신약전서>(新約全書, 1852), <구약전서>(舊約全書, 1855)

이 책은 1848년 홍콩연합선교회의 때 구성된 ‘위원회’에서 번역을 하여 ‘위원회역’ 또는 ‘대표역본’이라고도 하며, 1852년에 신약, 1854년에 구약이 출간되었다.

2) <구신약전서>(舊新約全書, 브리지맨역본: 1896)

브리지맨(E. C. Bridgeman)과 컬버튼(M. S. Culbertson)이 번역하여 1859년에 신약을 출간하였고, 1862년에 구약을 출간하였다.

3) <구신약성경>(舊新約聖經-文理串珠, 1912, 上海, 大美國聖經會)

“WENLI REFERENCE BIBLE”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위원회역본, 화합본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문리(文理)체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이 성경은 또 하나의 고전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

관람 안내

위 치: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에서 3분 거리, 대한성서교회 4층
시 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체 관람 시, 홍보부로 문의바람 (02)2103-8724
관람료: 무료

대한성서교회 성서전시실에 전시된
문리역 한문 성경



◦ Bible a Month Club 회원 신청서 ◦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성명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추천인	
주소			
이메일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매월 20,000원(성경 4권) ☐ 매월 10,000원(성경 2권) ☐ 매월 5,000원(성경 1권) ☐ 매월 원(성경 권)		
은행명	은행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본인은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의 개인정보를 대한성서교회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반드시 회색영역(3면)에 붙찰하여 반으로 접착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는곳

◦ Bible a Month Club 주요 프로그램 ◦



북한 동포 성서 프로그램

예배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100만 명에게 보낼 성경을 준비합니다.



중국 동포 성서 프로그램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협력하여 1987년 세운 중국 남경의 애덕인쇄소에서 한글 성경을 제작하여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보급합니다.



해외 성서 프로그램

가난과 질병, 전쟁과 소외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



미얀마 성서 번역 및 제작 지원 프로그램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과 보급이 이루어진 것은 서구 성서교회들의 지원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및 출간 100주년(2011년)을 기념하여, 미얀마의 5개 소수 종족인 파오, 쿠알심, 쿠미친, 하와나가, 라시드 종족의 성서 번역을 지원합니다.